

# 인간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이치훈·신방실 '나만 잘 살면 왜 안 돼요?' 출간

“플라스틱 조금 쓴다고 무슨 문제 생기는 건 아니잖아. 허름한 건물 싸 다 없어지고 새 건물이 생겨서 좋기만 하던데 왜 나빠? 나만 편하면, 나만 외면하면, 나만 기쁘면, 나만 부자면 뭐든 상관없잖아. 내가 왜 남의 문제에 신경 쓰며 살아야 하지?”

“나만 잘 살면 왜 안 돼요?”는 청소년들에게 나와 타인이 더불어 사는 삶을 꿈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KBS 시사교양국 이치훈 PD와 신방실 기상전 문기자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인간의 이기심이 서로 어떤 상처를 주고, 지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왜 함께 잘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인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기심이 민폐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여 준다.

첫째 ‘다양한 사회’에서는 혐오, 나홀로족, 페미니즘, 다문화 사회를 통해 ‘약자는 무시해도 될까?’라는 주제를 다룬다. 둘째 ‘경제와 자본주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가상 화폐, 쟈

트리피케이션, 감시 사회를 알아보며 ‘나만 혼자 잘 살면 될까?’를 이야기한다. 셋째 ‘자연과 인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적정기술, 환경호르몬, 식량 문제를 살펴보고 ‘무조건 편리한 게 좋을까?’를 생각해본다. 넷째 ‘대중문화’에서는 아이돌, 언어 파괴, 유튜브, 온라인 게임을 통해 ‘재미만 있으면 모든 게 용서될까?’를 고민한다.

‘나만 잘 살면 왜 안 돼요?’라는 질문은 사소하면서도 개인적일 수 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만나 중요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나만 혼자 잘하면 될 것 같고 나만 돈 많이 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이 책이 다루는 사회문제를 살펴보면 모든 결론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입장이 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인류가 함께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만 잘 살면 왜 안 돼요?’는 사회가 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나쁜 물론이고, 남도 잘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



려준다. 왜 우리가 나쁜 아니라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240쪽, 1만4000원, 북트리거

/뉴시스

## 다양한 장르로 함께하는 ‘한 여름 밤 콘서트’

오늘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서

고창군이 오늘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한여름 밤 추억을 간직하는 ‘한여름 밤의 꿈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정통 클래식부터 크로스오버, 대중가요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대, 감동의 무대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선사한다.

출연진은 록그룹 부활의 객원 보컬 출신으로 최근 불후의 명곡에서 최다 우승을 기록한 파워풀하면서도 감미로운 명품 보컬리스트 ‘정동하’, 5~60년대를 풍미한 보컬그룹 스타일을 현대적이고, 재치 있게 풀어내는 여성듀오,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 가득한 시간여행 결그룹 ‘버버렛츠’, 열린음악회 등 리브풀이 가장 많은 가수이자 정통 클래식은 물론 크로스오버와 뮤지컬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고 있는 소프라노 ‘김순영’,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국내의 오페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솔리스트들로 결성된 팝페라 그룹 ‘라 클라세’ 등이다.

또 연주를 맡은 ‘트로티카 밴드’는 재즈 프로그래머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전문밴드로 세대를 아우르는 출연가수들과 함께 전국 라이브 무대를 펼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마지막 무더위와 스트레



스를 맑고하게 씻어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현장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일반 3000원, 학생 1500원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태권도 경연대회가 이렇게 멋있어?

태권도원 특설무대에서 31일부터 이틀간 ‘태권도 문화페스티벌 결선’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이상욱)은 오는 31일과 9월 1일 태권도원에서 ‘2019 태권도문화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 결선을 갖는다.

총 상금 2560만원이 걸린 페스티벌 결선에는 지난 8월 15일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태권 레볼루션’ 7팀과 ‘태권 배틀 킥 잇’ 16명, ‘킹 오브 더 팀’ 30팀이 자웅을 겨루게 된다.

‘태권 레볼루션’은 비보잉, 제초, 발레, 사물놀이 등 타 분야와 결합한 융복합 태권도 창작 콘텐츠 경연으로 팀 당 5분의 공연을 통해 우승자를 결정한다. ‘태권 배틀 킥 잇’은 화려한 동작의 액션 스포츠인 트릭킹과 태권도의 결합된 경연으로 1대 1 토너먼트 방식을 접목해 박진감을 더할 예정이다.

‘킹 오브 더 팀’은 다양한 퍼포먼스에 격과 기술을 더한 종합 격과 경연으로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아기자기하면서 강한 힘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페스티벌에서는 경희대 시범단과 한국체대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공연이 펼쳐지고, ‘태권도 주먹 만들기’ 등의 태권도



태권도진흥재단이 오는 31일 태권도원에서 ‘2019 태권도문화 페스티벌’ 결선을 갖는다.

체험프로그램과 로컬마켓 베품시장,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즐거거리를 운영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페스티벌을 기획했다”라며 “멋진 축제의 장에 가족과 함께 찾아

와려하고 다양한 태권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문화페스티벌이 열리는 31일과 9월 1일은 태권도원에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무주반딧불 축제’와 연계한 관광도 가능하다.

/무주=전선진 기자

## 로만체피아노앙상블과 함께하는 ‘클래식음악공감’

내달 7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9월 7일 오후 3시에 로만체피아노앙상블과 함께하는 ‘클래식음악공감’을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공연으로 개최한다.

로만체 피아노 앙상블은 지난 2015년 라수현 단장을 주축으로 8명의 전문 음악인이 의기투합해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라수현 단장은 “로만체 앙상블은 다양한 연주회를 기획해 클래식 음악과 대중들과의 교류 역할을 할 수 있는 앙상블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회원들이 열정을 불태우며 준비한 공연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정기 연주회와 함께 인재양성 및 피아노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작곡된 다양한 앙상블 작품과 독주곡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노로 표현되는 주옥과 같은 명곡들이 선보인다.

캐논변주곡, 루이지 텐차가 작곡한 나폴리 민요 푸니쿨라 푸니쿨라와 우리에게 친숙한 것가라 행진곡, 곶양이춤 변주곡, 잠발라야, 샬페인 토카타, 터기행진곡, 아라베스키빈,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들이 연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클래식 공감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만날 수 있는 공연에 많은 군민들께서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